

한 번의 집중으로 만점을 향해! 一中 한국사!!

문 1.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 인종 때 편찬되었다. 본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은(는) 충렬왕 때 한 승려가 일정한 역사 서술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저술한 역사서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 설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 ① (가) -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하였다.
② (가) -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였다.
③ (나) -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양하였다.
④ (나) -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 답 ③

(가) 『삼국사기』, (나) 『삼국유사』

①은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고조선에 대해 삭제. ②는 『동명왕편』. 삼국사기는 신라계승 강조. ④는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

문 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는 등의 관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 ① 만권당을 통해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 교류에 힘썼다.
②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③ 철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④ 기철을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자주적 반원 개혁을 추진하였다.

☞ 답 ①

그는 충선왕. 원의 연경(대도, 북경)에 만권당 설치. 고려의 이제현과 원의 조맹부등의 교류. 원의 송설체와 성리학 전래의 가교 역할.

② 충렬왕 ③ 우왕때 최영의 주도. ④ 공민왕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 ①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 라고 판단한다.
②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③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④ 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해 본다.

☞ 답 ①

정민혁 교수님과 한국사 만점!!

한 번의 집중으로 만점을 향해! 一中 한국사!!

사료 또한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1번은 틀렸다. 사료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선 외적비판을 통해 사료의 작성시기, 작성자를 확인후 선택지 2,3,4와 같은 사료의 내적비판을 함으로써 사료의 정확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문 4.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은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 ①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②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③ 유엔 감시 하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④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 답 ①

제시문은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1945.12.)으로 내용. 이 결과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46.3)가 개최되었다. 임시정부와 공동위원회는 최고 5년동안 미-영-중-소 4국의 신탁통치하에 두기로 결정.

② 건국준비위원회 조직(여운형+안재홍 좌+우 연합. 1945.8.15) ③ 1948.5.10. ④ 소련은 미국보다 먼저인 45.8.13 청진에 상륙하며 북한에 진주! 미국은 1945.9.9. 미 군정청 설치! 소련이 먼저 한반도에 진출했다는 것을 수업시간에 강조!

문 5. 밑줄 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명의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하였다. ... (중략) ...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조야(朝野) 모두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매국배종(賣國背宗)하였다'고 하였다.
- .윤치호일기. -

- ①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 ②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 ③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 ④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 답 ④

제시문은 갑신정변(1884)에 대한 내용이다.

임오군란으로 일본 공사관 전소. 1884년 일본은 교동에 일본 공사관 재설치. 갑신정변으로 다시 전소. 일본측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었고, 일본 공사관 신축비 부담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조약 체결.

- ① 정동구락부는 윤치호등 손탁호텔을 중심으로 결성된 인사들. 1894년 서울 정동에 있던 주한 외교관과 조선 교관들의 친목 단체로 이들은 독립협회에 참여.
- ② 개화당은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경우궁으로 옮기고 정강 발표.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한 갑

한 번의 집중으로 만점을 향해! 一中 한국사!!

오변란은 1894년 6. 21.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발생. 이는 흥선대원군의 친위 쿠데타로 위장한 사건.

③ 갑신정변 이전. 1883년 임오군란의 사죄사로 일본에 간 3차 수신사였던 김옥균 등 개화당은 정부의 근대적 개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고종의 위임장을 얻어 일본에 차관 교섭을 시도, 실패. 일본의 불신과 국내 보수파의 방해!

문 6. 개항기 체결된 통상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일 통상장정(1876) -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 ② 조.청 수륙무역장정(1882) - 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 ③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 -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세율이 부과되었다.
- ④ 한.청 통상조약(1899) - 대한제국 황제와 청 황제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 답 ①

① 1876년 조일통상장정은 조일무역규칙으로 불림. 양곡무제한 방출 허용! 무관세! 방곡령이 합의된 조항은 1883년 부분 수정된 조일통상장정. 그러나 1개월전 일본에게 알려야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조선은 막대한 배상금만 지불! 유관세! 최혜국 대우 규정! 2번, 서울 양화진에 청상인의 상점 개설과 내지통상권 허용. 4번, 대한제국시기 청과 대등한 조약 체결!

문 7. (가)~(라)의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다)	(라)	
	↑	↑	↑	↑	↑
	기원전 18년 건국	475년 웅진 천도	538년 사비 천도	660년 사비성 함락	665년 문무왕과 회맹

- ① (가) -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통치 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 ② (나) - 남쪽의 마한 잔여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하여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 ③ (다) -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했으나 얼마 후 신라에게 빼앗겼다.
- ④ (라) - 복신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 답 ②

② (가) 4세기 근초고왕때. 중국이 5호16국의 분열기를 활용.
 ① 3세기 고이왕. 한강일대 장악, 영산강 유역 진출의 교두보 확보. 6좌평 16관등제, 3색공복제. 아직은 형제상속. ③ 6세기 성왕. 나제동맹 활용하여 북한강 하류 점령했으나 진흥왕의 배신으로 탈취당함. 관산성 전투에서 왜-대가야와 연합세력을 형성하며 저항했으나 전사. ④ 7세기 백제 부흥운동. 흑치상지-복신-도침-부여풍 임존성과 주류성에서 저항.

문 8.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통일신라시대의 신분층과 연관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들의) 집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奴)이 3천 명이며, 비슷한 수의 갑병(甲兵)

한 번의 집중으로 만점을 향해! 一中 한국사!!

이 있다. 소, 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 먹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 주어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부린다.
- .신당서. -

- ① 관등 승진의 상한은 아찬까지였다.
- ② 도당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③ 돌무지덧널무덤을 묘제로 사용하였다.
- ④ 식읍·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다.

☞ 답 ④

제시 자료는 진골귀족의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보여준다. 전장이란 대규모 사유지. 진골은 식읍과 녹읍을 통해 소유한 대토지에서 나온 수입으로 4절유택이나 금입택의 경비마련. 서민 상대 고리대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

- ①, ② 6두품에 대한 내용이다. 진골은 이별찬까지 가능!
- ③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 상대에 사용한 묘제이다. 4c 내물 마립간때부터 활발히 축조! 통일 이후에는 점차 굴식돌방무덤으로 변화, 무덤 주위에 돌레돌을 두르기 시작하였다.
물론 통일이전에도 굴식돌방무덤은 나타난다고 항상 강조! 역시 출제가능한 영역. 경북 순흥 어숙지 술간묘(벽화 발견, “을묘년 어숙지 술간” 595년으로 추정). 순흥 읍내리 고분 (벽화발견, 479년으로 추정, 고구려의 영향)

문 9. 임진왜란 때의 주요 전투를 벌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ㄴ.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ㄷ. 진주목사 김시민이 왜의 대군을 맞아 격전 끝에 진주성을 지켜냈다.
ㄹ.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의 수군을 격퇴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 ① ㄱ→ㄴ→ㄷ→ㄹ ② ㄱ→ㄷ→ㄴ→ㄹ ③ ㄹ→ㄴ→ㄷ→ㄱ ④ ㄹ→ㄷ→ㄴ→ㄱ

☞ 답 ④

④ ㄹ. 한산도대첩 (이순신의 학익진으로 남해의 제해권 장악, 전라도 곡창지대 사수. 왜장은 와키자카. 1592.7.) →ㄷ. 1차 진주성 싸움(진주대첩. 진주목사 김시민+홍의장군 광재우. 1592.10.)→ㄴ.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1593.1.)→벽제관 전투 대패(명군은 권율과 합세하여 서울 탈환 계획했으나 실패, 명군 개성으로 후퇴.)→ㄱ권율의 행주대첩(1593.2.) →일본 측의 휴전제의(3년 협상)→4월, 일본군 경상도까지 퇴각→휴전회담 기간중 1593.6 2차 진주성 전투(대패, 함락, 김천일 전사, 논개 활약)
***2차 진주성싸움은 대첩이 아니라 대패다!**

문 10.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물로 바칠 별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모리배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 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큼니다.

한 번의 집중으로 만점을 향해! 一中 한국사!!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 ①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 ②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 ③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 ④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 답 ② 자료는 효종실록. 김육의 건의.

밑줄 친 '이 법'은 대동법이다.

② 대동법은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 이원익, 한백겸의 건의로 선혜청을 통해 경기도에서 최초 시행. 인조때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로 확대. 효종때 김육의 건의로 충청, 전라도로 확대. 숙종때 허적의 건의로 1708 전국적 실시(영류지역 제외).

1번,3번: 대동법=공납의 전세화. 그러나 공납은 상공,별공,진상이 있는데 **상공만 전세화!** 여전히 현물납부관행으로 별공과 진상 존재.

문 11. 밑줄 친 '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 왕 재위 2년에 전진 국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며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 (이에 우리) 왕께서 사신을 보내 사례하며 토산물을 보냈다.

○ 왕 재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법(佛法)의 시작이었다.

- .삼국사기. -

- ①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하였다.
- ② 진휼 제도로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 ③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다.
- ④ 왜에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해 주었다.

☞ 답 ③

'왕' 은 고구려 소수림왕.

① 7세기 영양왕때, 이문집이 '유기'를 간추려 '신집' 편찬. ② 2세기 고국천왕때 한미한 가문 출신의 국상 을파소 등용하여 시행. 국가재정 강화책-민생안정책-왕권강화책 ④ 7세기 고구려 영양왕때 답징.

문 12.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종교 계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하였다.
- ②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③ 민족 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를 결성하였다.
- ④ 한국독립군이 한.중 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하였다.

☞ 답 ④

④ 1931.9.18. 만주사변과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의거를 계기로 한중연합작전을 1932년 이후 개시!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중국호로군과 연합하여 동경성 전투(1933), 사도하자전투, 경박호,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대승!

정민혁 교수님과 한국사 만점!!

한 번의 집중으로 만점을 향해! 一中 한국사!!

① 자유시에 가지 않았던 김좌진과 자유시 참변 이후 대종교계열 인사들이 참여하여 북만주의 신민부(1925) 결성 ② 봉오동 전투(1920), ③ 192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의 1차 국공합작에 영향 받아, 만주에서도 3부통합운동이 발생. 그러나 결렬되고 남만주에서는 국민부(1929) 결성.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결성.

문 13.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갖은 방법으로 균역을 회피하고 있다. 간사한 아전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幼學)이라 칭하면서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 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한다. 호적이 밝지 못하고 명분의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

- .일성록.-

- ① 사족들이 형성한 동족 마을이 증가하였다.
- ② 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변질되었다.
- ③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재소가 설치되었다.
- ④ 부농층이 관권과 결탁하여 향임직에 진출하였다.

☞ 답 ③

제시문은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에 대한 내용이다. 경재소는 이미 조선전기 세종때 유향소를 견제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

1번: 조선후기 부계중심사회로 진행되며 동성마을 증가.

2번, 4번: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이후 향회는 수령의 세금부과시 자문기구로 전락! 즉, 수령 권(관권)강화, 지방양반의 권위 추락. 부농층(신향)은 수령에게 로비(결탁)하여 향임에 진출. 기존양반(구향)과 신향의 치열한 싸움: 향전

문 14.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곧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상복을 입었다. 삼년상이 끝나고 관직에 복귀하였으나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이내 관직 생활의 뜻을 접고,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향리로 퇴거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조선 왕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다.

- ① 서리망국론을 부르짖으며 당시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② 아홉 차례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 ③ 주희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철학에서 이(理)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 ④ 우주자연은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 답 ③

'이 사람'은 이황. 이황은 주희의 성리학 수용, 주리론 집대성. 동방의 주자로 불림! 천원권 화폐. 영남학파-이기호발설-이기귀천론(이존기비론)-주리적 이기이원론. 일본의 성리학에 영향. 도산서원-예산향약-파주향약. 주자서절요-성학십도-전습록변-이학통록-도산12곡.

- ① 조식이 방납의 폐단을 지적하며 주장한 내용. ② 이이 ④ 서경덕 등 주기론자의 주장.

정민혁 교수님과 한국사 만점!!

한 번의 집중으로 만점을 향해! 一中 한국사!!

문 15. 다음 선언문을 강령으로 했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① 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
- ② 경성 부민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③ 일본 제국의회와 항공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 ④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하였다.

☞ 답 ②

이 자료는 의열단 선언문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문(1923). 의열단은 김원봉-윤세주를 중심으로 1919.11월 만주 길림에서 조직, 상해에서 주로 활동.

② 경성 부민단 폭탄 사건: 1945년 7월 경성 부민관에 친일파 거두인 대의당의 박춘금 일당이 주최하는 아세아민족분격대회가 열린다는 보도가 나옴. 당시 비밀결사인 애국청년단 소속 조문기, 유만수 등 당시 20세 안팎의 열혈 청년들이 폭탄을 투척하여 대회를 무산시킴.

1번: 민족혁명당은 1935년 의열단을 중심으로 중국 관내인 남경에서 조직(주석: 김규식, 총서기: 김원봉) 좌+우 연합 성격. 3번: 1924년 의열단원인 김지섭의 이종교 투척사건

4번: 1926년 의열단원 나석주의 의거. 나석주는 임정 경무국 경호원 출신. 김구와 임정을 이끌던 김창숙(유림의 대표)의 요청으로 1926년 12월 중국인 노동자 마중덕으로 위장 잠입.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파 임무를 수행했으나 실패.

문 16.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추진한 정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 사람들이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의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 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폐(殘廢)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塔洞)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 ... (중략) ... 결국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 매일신문 -

- ①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 ②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
- ③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 ④ 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에 전차노선을 개통하였다.

☞ 답 ③

제시문은 대한제국(1897~1910)기 외국인의 유입으로 이권이 침탈되는 내용.

매일신문은 최초의 순한글 일간지로서 1898년 창간.

* 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폐간후 창간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③ 1915년 조선총독부는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기 시작. 친일학술기관의 역할. 대한제국때 중추원은 황제자문기구로서 민의를 반영하기도 함.

한 번의 집중으로 만점을 향해! 一中 한국사!!

1번: 대한제국은 경운궁(덕수궁)을 정궁으로,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시키고 풍경궁 설치. 2번: 정부재산관리와 국고출납을 맡으며 대한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음. 4번: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의 합작으로 한성전기회사 설립. 1898년 서대문-홍릉(청량리)간 전차 최초 운행. 동양에서 2번째.

문 17. 밑줄 친 ‘이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서 유행한 이 사상을 전하였다. 이는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주택·묘지 등을 선정하는, 경험에 의한 인문 지리적 사상이다. 아울러 지리적 요인을 인간의 길흉 화복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자연관 및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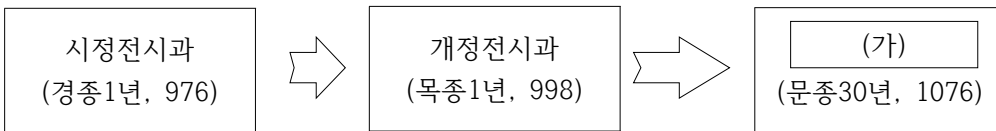
- ① 신라 말기에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 ② 신라 말기에 호족이 자기 지역의 중요성을 자부하는 근거로 이용하였다.
- ③ 고려시대에 묘청이 서경 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 ④ 고려시대에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초제로 행하여졌다.

☞ 답 ④

‘이 사상’은 풍수지리사상이다.

④ 도교에 대한 내용. 초제는 고려때 국가적인 도교 행사. 고려 예종때는 도교사원인 복원궁 건립. 일관된 사상체계나 교단은 미성립.

문 18. 전시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제도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ㄴ. 산직(散職)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ㄷ.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
 ㄹ.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 답 ④

(가)는 문종때의 경정전시과이다. 현직에게만 수조권 지급. 경정전시과는 1등급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토지지급액수 감소함. 거란과의 항쟁과정에서 무인의 공을 인정하여 무반에 대한 대우 향상. ㄱ은 경종때의 시정전시과 내용으로 관품+인품 반영, 광종때 시행한 4색공복제 기준.

한 번의 집중으로 만점을 향해! 一中 한국사!!

문 19. (가)와 (나) 시기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가)	(나)	
	↑	↑	↑
	기원전 2333년전 단군의 등장	기원전 194년 위만의 집권	기원전 108년 왕검성 함락

<보 기>

ㄱ. (가) -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ㄴ. (가) - 고조선 지역에 한(漢)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ㄷ. (나) -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였다.
 ㄹ. (나) - 비파형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 답 ① (가) 단군조선, (나) 위만조선

고조선은 3세기경 왕위를 세습하고, 주나라 제도를 수용하여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위만은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남방의 진이나 동방의 예가 한과 직접 무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무역의 이익을 독점.

ㄴ. 기원전 128년, 위만조선 때. 위만조선에 반발한 예의 군장 남려가 28만명을 이끌고 요동군에 투항해 오자 한 무제가 요동에 설치한 것이 창해군.

ㄹ. 단군조선 시기의 사실.

문 2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 ①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②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③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 %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④ 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

☞ 제시문은 일제의 토지조사령(1912). 토지조사사업은 1912 ~ 1918.

답 ②. 토지조사령 4조의 내용. 기한부신고제에 입각한 신고주의에 입각하여 약탈.

① 토지조사사업은 토지만 조사. 1911년 조선총독부가 삼림령을 통해 조선의 임야를 강제로 편입. 1918년에는 임야조사령을 통해 전체 삼림의 50%를 강탈.

③ 지세령 개정(1918): 필지별 토지수익에 근거한 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지역별 지가와 지

한 번의 집중으로 만점을 향해! 一中 한국사!!

세를 명기한 과세표준은 토지조사사업으로 가능해진 토지소유권 확립 이후에 가능한 일.

④ 토지가옥증명규칙(1906): 통감부 통치기. 외국인(실제로는 일본인을 의미)도 토지소유권을 가질수 있도록 한 법령

총평: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작년 국가직 보다는 체감난이도는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했다면 무난히 85점 이상은 가능한 문제입니다.

본인의 점수가 확인되었다면 이제 다시 뛰어야 합니다.

다소 부족했더라도 좌절하지 맙시다! 이제 지방직-서울시 대비로 매진해야 합니다.

테마별로 분석하면 정치사 12 경제사 3 사회사 2 문화사 3 출제!

시대사로 분석하면 전근대사 13, 근현대사 7 출제!

근현대사에서 개항기와 일제침략기는 다룬 반면 현대사에서 해방공간을 제외한 최근 현대사 영역은 전혀 출제하지 않았다. 또한 전근대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수 있는 근대태동기의 정치사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 좀더 균형잡힌 안배가 요구된다.

다소 생소한 사료를 사용하여 수험생을 괴롭히려 했지만 수업시간에 늘 강조했듯이, 처음보는 사료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독해력이면 이해가능한 사료들이었다.

기본이론-시대사별 문제풀이-기출문제출이+다양한 테마별 특강으로 연습을 실전처럼 해온 학생들은 역시 8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노력을 믿으며 다시한번 합격을 위해 달려갑시다!

만점을 향한 한번의 집중! 一中한국사! 정민혁 교수가 응원합니다.

정민혁 교수님과 한국사 만점!!